

2026년 9월호

월간연영회

9월 주제 : 「9월 나의 베스트 컷」

고다비드 김건우 김성민 김진수 김태연 김현준 박시영 박혜민 송승우 송찬혁 오성민 이경환 이상우 타가와 아키히로 한재원

Q

9월 한 달간 찍은 사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은 무엇이었나요? 그 사진이 좋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복궁이 아름답고 섬세하다는 것은 많은 방문객이 느끼는 감정이다. 낮에 종종 방문했던 기억이 있고, 해가 밝을 때의 여러 사진들을 봐왔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사진이 존재하기에 사진을 찍기에는 역설적으로 평범한 공간이였다.

야간개장이라는 티켓을 얻게 되었고, 하늘이 높은 9월의 저녁에 방문하였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답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었고, LED 조명을 사용하여 매우 화려한 모습을 띄었다. 근정전의 정면, 측면 모두 아름다워 사진을 남겼지만, 빛이 정면에 강하게 있어 하늘과 경복궁의 대비만 눈에 띄어 감흥이 부족했다.

걸어서 뒤편으로 갔다. 사람들은 그저 어두운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사진은 찍지 않고 지나치는 공간이었다. 엄청난 빛의 대비를 발견했다. 정면과 좌우측면과 달리 후면의 2층에는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었다.

평소에는 경복궁이 화려하게 만드는 요인은 五色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 화려함은 각진 모서리와 은근한 곡률이 있는 처마의 대비, 층별로 수직의 움직임을 띄는 처마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직관적인 사진을 찍고 싶었다. 황금비율은 믿지 않지만, 대부분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기준 중 일부는 수학적인 규칙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규칙만 반복되면 재미가 없기에 1-2개의 변주가 필요하다. 그 변주가 잘 나타난 사진이라고 생각하여 제출하였다. 수용자가 오래도록 본 후에 느꼈음 좋겠는 변주는 조선의 근정전과 현대의 조명이 만들어낸 대비이다.

이것을 만들어낸 선조들과 야간행사를 열어준 서울시에 감사함을 느낀다면 더할 나위 없이 나의 의도가 전달된 것이다.





일몰 시간이 가까워질 때 행인들의 그림자가 짙고 길어지는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기 전날 일몰시간에 같은 곳을 카메라 없이 갔었는데, 강한 햇빛과 바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꼭 담고싶어 다음 날 다시 같은 위치로 가서 찍은 사진이어서 뿌듯함이 큽니다.

각자의 다른 일상 속에서 바쁘게 어디론가 걸어가는 사람들이지만 지는 햇빛을 맞으면 모두 별 볼일 없는 비슷한 그림자로 존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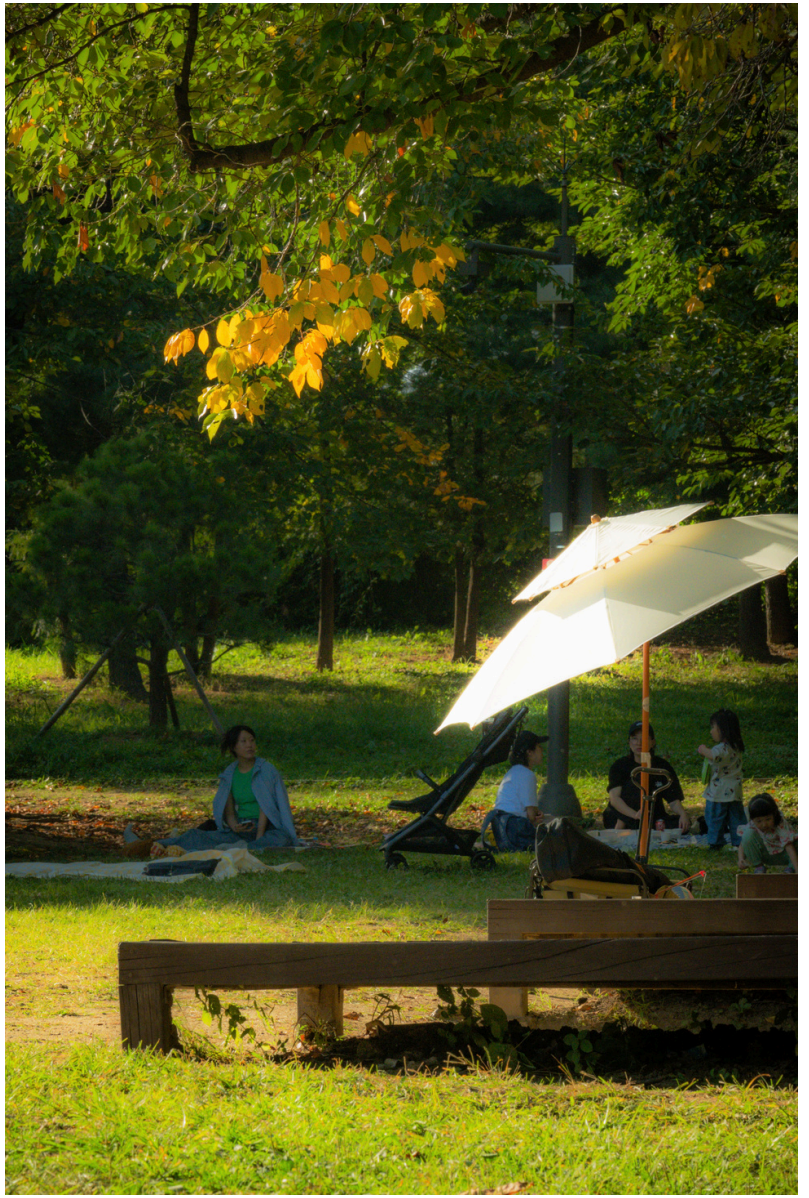
이 사진을 찍은 공간은 잔디밭과 평상, 나무와 그늘이 어우러져 있어
많은 가족 단위의 피크닉객들이 찾는 곳이다.

최근 많이 선선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낮의 햇볕은 뜨거워서인지,
어떤 가족은 평상 위에 흰 파라솔을 펼쳐놓고 자리를 비웠다.
그 너머 그늘엔 돗자리를 펼치고 앉은 가족의 모습이 보인다.

언뜻 보기엔 멀리 보이는 가족이 파라솔 아래에서 햇빛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경(평상과 파라솔)과 원경(나무와 그늘, 가족)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평상과 파라솔 사이 가족의 위치가 절묘하게 보여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다.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 시선의 방향이 흰 파라솔로 집중되면
자연스럽게 그 아래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족으로 시선이 이어지고
이후 빈 평상으로 이어지며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두 상황
(두 아이와 도란도란 시간을 보내는 가족, 잠시 자리를 비운 가족)이 대비될 것이라
생각되어 파라솔에 반사된 햇빛을 밝게 강조하였다. 또한 나른한 오후의 분위기가
공간의 특성에도 부합할 것 같아 전체적인 톤은 약간 따스하도록 조절하였다.

색감과 분위기가 마음에 들게 나왔고 나 역시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기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선정하였다.





저는 색깔이 화려한 사진, 구도가 단순한 사진,
그리고 파스텔톤이 나는 사진을 좋아합니다.

이 사진은 코스모스의 화려한 색깔, 코스모스 foreground와 길의 leading line이 합쳐져 시선이 가운데 건물 쪽으로 모이게 되는 단순한 구도, 그리고 약간 비현실적인 파스텔 톤이 주는 예술작품같은 느낌 모두 지니고 있어 선정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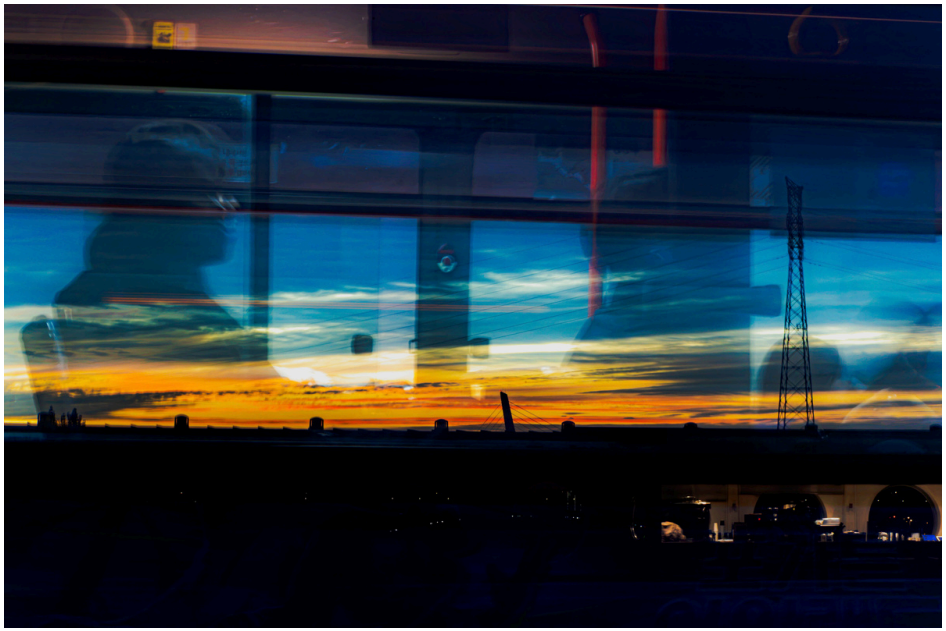
월간연영회 9월 호 사진을 제출 하면서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초반에는 풍경 사진만 찍었더라고요,
처음에는 풍경이 사람보다 덜 부담스러워서 더 쉬운줄 알았는데 갈수록 풍경에서 예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 대부분 스트릿이고 사람들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혼자 있는 사람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어쩌면 제 내면에 있는 외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그런 비슷한 사진을 많이 찍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사진도 그러한 맥락에서 찍은것 같고 요즘은 이런 사진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진은 선유도 출사 때 찍은 사진이다.

마음에 듣는 이유는 크게 여러 공간을 담아낸 '공간성'과 사진의 '재현 불가능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사진을 찍기 전, 처음에는 사진 밑 부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카페 공간을 노을과 함께 담으려는 의도로렌즈를 향했다. 그 중에 전경에서 자동차가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노이즈가 될 것 같아, 빛을 궤적으로만 남기기로 했다.

다만, 촬영할 때 ND필터와 삼각대가 없었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셔터속도를 되도록 길게 가질 수 있도록 집중하였다. 메타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팅은 ISO 100, f32, 셔터속도는 4초이다. 조리개는 렌즈마다 한도가 다르나, 이 사진에 경우 사용한 렌즈에서 가장 어둡게 할 수 있는 f32로 설정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찍으면 보통 노을 배경으로 자동차가 오가는 빛이 선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 사진에서는 버스 일부가 그림자처럼 회상되는 이미지로 나타난다. 셔터를 누르고 난 뒤 노출이 진행되는 도중에 버스가 화각 안에 들어와 정차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진은 보통 '다중 노출' 기능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은 여러 장 찍은 뒤에 사진을 합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반면 이 사진은 셔터를 한 번만 눌러 한 장으로 찍었기에 재현 불가능성이 있다.

이 글은 연영회 모든 사람들에게 쓰는 글입니다.

제가 몇 개월전부터 하고 있는 고민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사진을 취미로 인식하고 찍은 것이 2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길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찍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거지?

어떤 사진은 이미 누군가가 더 잘 찍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 덩어리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은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사진 계정에서 예술이 아닌 것들을 모조리 내렸습니다.
소개글에 예술가를 달아놓고 예술을 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진을 예술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만의 오리지널리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오리지널리티를 찾으려 했습니다.

제가 잘 찍었다고 생각한 사진들을 관찰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이 있는 사진이 흥미롭습니다. 인물이 있으면 그 주변 인물과의 관계, 그 공간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사진을 보는 것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레이어가 있습니다. 저는 전경, 중경, 후경 모두 볼거리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흘러가 사진 전체를 보게 됩니다.
피사체 하나만을 찍은 사진보다 더 흥미롭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 층이 있는 사진을 좋아하여 저는 조리개를 8~11 정도로 찍습니다.

저는 최근에 인물과 레이어를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찍는 것이 진짜 오리지널리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선 제가 앞에서 언급한 특징들이 있는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식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번 월간 연영회에 제출한 사진입니다. 저번 주말 출사 때 어린이 대공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인물과 레이어가 있는 사진이죠.
전경에 있는 사람들의 윤곽선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후경에는 물범이 있고 중경에는 물범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경에 있는 물범의 꼬리가 전경에 있는 인물의 목 라인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매우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최근 몇 개월동안 고민한 것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어떤 사진을 좋아하는지 고민해보고 신인사진전 이전에 본인만의 오리지널리티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가 한 송이 바람에 부대끼고 있었다.
가을이 되어서야 피는 꽃들은 금방이라도 하늘하늘 날아갈 것만 같은 모습이다.
색깔은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주변에는 다 마른 풀들밖에 없으니까.

꽃잎은 밝은 느낌. 반대로 배경의 나무 그늘은 어두컴컴.
어차피 음양만을 남길 거라면 배경의 세부사항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감도를 낮추고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했다.

이번 사진에서는 수면을 경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풍경을 담고자 했다.

물 위의 정자는 선명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에 비친 정자는 잔잔한 물결에
따라 조금씩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같은 대상이라도 바라보는 방식과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

이를 위해 정자와 수면에 비친 모습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도를 잡았다. 특히 물 위의 정자와 반영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선명한 현실과 일렁이는 반영이 만들어 내는 미묘한 차이를 통해 하나의
풍경이 지닌 두 가지 매력을 표현하고자 했다.

평소라면 정자 자체에만 시선을 두었겠지만, 이번에는 물에 비친 모습까지 함께
바라보면서 익숙한 풍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의 베스트 한 컷으로 선정했다.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림에 집중하고 있는 사촌동생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명절의 북적이는 분위기 속에서도 한 사람의 작은 순간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연출하지 않은 표정과 동작이 자연스럽게 남아 마음에 들었던 사진입니다.

연영회의 인물사진 세미나가 있던 날, 오랜만에 카메라를 들고 등굣길에 올랐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하게도 짙은 구름만 드리우고 있었다.
오늘은 풍경 사진을 찍기 어렵겠구나 싶어 조용히 체념하고 있었다.

그러다 해 질 무렵,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많던 구름은 흩어지고 하늘은
수줍은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담쟁이 넝쿨을 곱게 두른 고풍스러운
언더우드관 위로 번져가는 노을을 보며, 멈추었던 숨을 고르고 셔터를 눌러
교정의 모습을 담았다.

거짓말처럼 마주한 이 풍경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가장 좋아하는 이 공간에서, 선물처럼 찾아 온 분홍빛 하늘은 내게 기분 좋은 전율을
주었다. 이것이 내가 이 사진을 9월의 사진으로 선정한 이유다.





동묘 거리에서 바로 앞의 두 친구의 모습,
그리고 그 앞을 거니시는 두 어르신의 모습을 한 프레임에 담았다.

세월의 간극을 두고 놓인 네 사람의 구도를 통해, 지금의 젊은 우정이 먼 훗날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인물들의 관계성과 세월의 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경의 채도는 낮추어 연출했다

잔잔한 연못을 중심으로 빽빽한 나무와 하늘이 한 화면 안에 겹쳐진 순간을 담았다.

흑백으로 표현된 풍경은 나무의 형태와 수면의 잔물결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며,
색이 사라진 자리에는 빛과 질감이 남는다.

화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물과 그 위로 희미하게 비치는 풍경을 통해
익숙한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고요함과 여유를 표현하고자 했다.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과 구름이 눈에 들어왔다.
푸른빛의 하늘에 분홍빛과 금빛이 겹쳐진 모습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고, 그때 느낀 색감과 분위기를 사진으로 최대한 남기고 싶었다.

특히 구름 사이로 퍼지는 노을빛과 그 빛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에 주목했다.
하늘과 수면을 함께 담아 따뜻한 빛이 화면 위아래로 이어지도록 했으며, 그 사이에 놓인 다리의 어두운 실루엣이 노을의 색을 더욱 드러내준다고 느꼈다.

보정에서는 빛이 지나치게 번져 보이는 부분을 줄이면서,
처음 눈으로 보았을 때 인상적이었던 따뜻한 색감과 분위기를 살리고자 했다.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마주한 특별한 풍경을 담은 사진이다.

개인적으로 구도가 안정적이게 느껴져서 이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열기구가 떠 있는 위치와 전체적인 건물의 배치가 조화롭게 느껴지며,
노을이 지는 시간대의 따뜻함이 잘 담긴 것 같다.

